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강해 시리즈 III

위로받은 성도의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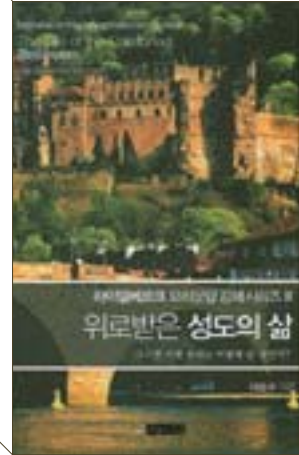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보통 기독교인들은 성경만 있으면 되지 신조나 요리문답이 왜 필요한가라고 묻는다. 그리고 성경과 교리 둘 중에 성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요리문답서나 신앙고백서는 권위도 없고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런 견해는 성경과 신앙고백서와의 관계에서 한 가지만 아는 것이다. 이승구 박사는 이런 태도에 대하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비록 부족함이 있더라도 신조에 표현된 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잘 표현하려고 시도한 것임을 기억하라고 강조하였다.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들의 신앙고백을 철저하게, 성경에 충실하게 따르기 위해 자신들의 지식과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었다.

금번에 이승구 박사의 세 번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강해집이 출간되었다. 저자는 위로받은 성도의 삶이 혼탁한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하는지 도전한다며, 그에 대해 성경적이면서도 개혁신학적인 답을 제시하였다. 20세기 기독교 지성인 프란시스 쉐퍼(Francis Schaeffer)의 기념비적 작품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How Should We then Live?)』에서도 같은 말이 사용되었다. 한국의 프란시스 쉐퍼로 일컬어지는 이승구 박사의 요리문답 강해는 이 시대 우리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의 해석을 통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지혜를 다루고 있다.



안명준 중앙대학교졸업, 합동신학대학원(M.Div.),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Th.M.),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Th.M.), University of Pretoria(Ph.D.), (현)평택대학교 피어선신학전문대학원 교수, 피어선기념성경연구원 원장, 저서와 공저(성경적 조직신학, 칼빈의 해석학과 신학의 유산, 칼빈의 성경해석학, 신학적 해석학 상, 하, 칼빈신학 2009, 칼빈신학과 한국신학, 칼빈과 한국교회, 한국교회의 문제점과 극복방안, 칼빈신학해설, 최근의 칼빈연구, 기독교 알기)



책의 첫 부분인 1부에서는 ‘위로 받은 성도들의 삶: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의 감사의 표현으로서의 삶’을 다루고 있다. 모두 3가지를 다루는데, 첫 번째는 ‘그러면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이다. 두 번째로는 기독교적 삶의 구조를 다루고, 마지막으로 중생에서 나오는 선행을 드러내며 사는 삶을 다룬다. 이 세가지는 이 책의 핵심 사상으로 이 부분을 잘 이해한 후, 제2부에서는 ‘하나님의 법과 위로 받은 성도의 삶’이란 제목으로 십계명을 통해 우리 삶의 구체적인 현장과 우리가 마주치는 사건에서 우리 성도들이 성경의 교훈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이승구 박사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하여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구원 받은 성도들의 자연스런 반응이라는 것이다. 그는 복음을 왜곡하는 잘못된 경우에 대하여 두가지를 설명한다.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방종의 삶을 사는 반율법주의자에 대해 경고한 후, 두 번째로 공로로 구원을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에 대해 경고한다.

그렇다면 복음에 대해 바르게 반응하는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저자는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면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 첫 번째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복음에 바르게 반응하는 사람으로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만 의존하며 산다고 한다. 주의 자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근거라는 것이다. 둘째로 구주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어진 삶에서 열심히 주님의 뜻을 행해 나가는 일에 힘쓰는 것이다. 주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상고하고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추구하며 자신의 삶 가운데서 그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 힘쓰게 된다. 성령님께 의존하여 살게 되면 영적인 선 (spiritual good)을 이루게 되고 이것이야말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라고 한다.

저자는 이런 영적인 선행에는 몇 가지 유익이 있다고 말한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표



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우리의 영적인 선행은 우리의 신앙이 참되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기능도 가질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조심해야 할 것은 이를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거나 표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 우리의 영적인 선행은 전도에 유익이 된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위와 같이 참된 성도는 주님만을 의존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한다.

저자는 주님의 뜻을 이루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여 살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아니”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저자는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이들은 지금 여기서도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한다.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 받았다는 것이다. 옛 사람으로는 죽은 이들이고 “이미” 새 사람을 입었다고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늘 영광에 “이

미” 참여하고 있으나, 그 온전한 영광이 다 나타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여기에 “아직 아니”의 요소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부활과 영화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이미”와 “아직 아니”의 긴장 속에 성령님을 따라 하나님의 법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이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돕기 위해서 바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강해시리즈 III』가 소중한 안내서 역할을 해 줄 것이다. 이 책에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다.

첫째, 저자는 개혁주의 정통 신학자로서 그의 성경 해석적 지식을 통해 독자들에게 접근한다는 것이다.



특히 조직신학적 설명이 뛰어나다. 보통 교리적인 면에 치우치다 보면 성경적 해석이 약하기 쉬운데, 이 책은 성경적 근거에 항상 기초를 두면서 하이델베르크의 정신을 가지고 정통 개혁신학의 관점 속에서 교리문답을 강해하고 있다.

두 번째는 강해의 풍부한 내용을 위해 칼빈의 『기독교강요』나 칼빈의 주석, B. S. Childs, Keil and Delitzsch, 그리고 종교개혁 당시의 필립 멜랑히톤의 『신학총론』, 미국 CRC 교단의 새로운 번역을 비교하고, 외국의 권위있는 주석뿐만 아니라 한국의 박윤선 박사와 김홍전 박사, 최낙재 교수의 글등을 풍성하게 소개하고 있다. 이런 학문적 통찰은 요리문답 강해서를 한층 더 높은 수준의 해석으로 만들어 주고 있다.

세 번째는 신학적 주제에 조직신학적으로 견고한 강해와 더불어 저자 특유의 성경신학적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기존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G. Vos의 관점에서 보완하여 설명하고 있다.

특히 제4 계명 주일 문제를 다룰 때 안식일에서 주일 예로의 변화를 설명하면서 G. Vos의 성경신학적 관점 중 종말론적 의미를 강조하였다.

네 번째, 삶의 구체적 정황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재의 이슈들에 대하여 기독교인으로서 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동양적 효 문제, 기독교 가정, 사회적 생명운동, 혼전 동거와 계약 결혼, 동성애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강해시리즈 3권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신학이 될 하나의 작고 아름다운 개혁파 교의학이라고 불리우길 바란다. 저자의 바람에 동의할 표하면서 서평을 맺는다. 